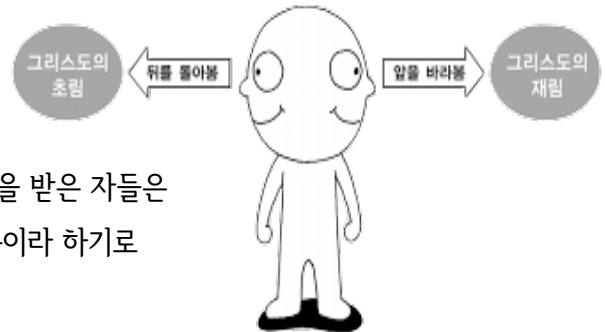


## ◆ 초림은 아멘, 재림은 글썸 ◆

요한계시록 19:1-21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 [서론]

최근에 어느 인터넷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오늘의 교회는 재림 예수를 죽였다”라고 쓰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한 동안 멍했다. 유대인이 죽였건, 로마제국이 죽였건, 아니면 우리가 그를 죽였건 '초림 예수를 죽였다'는 말은 그리 낯선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이 헤드라인의 표현은 매우 생소하고 도발적이었다.

### 오늘날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어떤가?

**첫째, 재림 부인론자들이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있냐고 ①\_\_\_\_\_하는 자이다.(벧후3:3-4)

**둘째, 재림 집착론자들이다.** 예를 들면, ②\_\_\_\_\_ 종말론자들이다.(살후 2:1-2; 3:11) 저들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왔고 연월일시까지 정하며, 소위 '직통계시'로 받았으니 아빠는 퇴직하고, 자녀들은 학교를 자퇴하며, 집 팔고 차 팔고 산속에 들어가 공동생활 하면서 '휴거'의 날만 기다리는 자들이다.



셋째, 재림 무관심자들이 있다. 부인도, 관심도 아니다. 그냥 ③\_\_\_\_\_이다.



위 세 가지 입장은 오늘날 저만치 눈에 보이는 듯한 천성을 향하여 바쁘게 걸음을 옮겨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발목지뢰'들이다. 이러한 지뢰를 밟지 않고 무사히 천국문에 이르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호,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본론]

계시록 19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국면, 하일라이트를 보여주는데, 그 절정 중의 최고는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④\_\_\_\_\_에 많이 비유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구약시대로부터 남녀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4세기의 조토 디 본도네의 작품: Marriage at Cana

첫번째는, ⑤ \_\_\_\_\_ 단계다. 그들은 혼인식을 하기 전에 정혼식을 치루었다. 한 번 정혼을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

두번째는, 정혼을 하면 신랑 집에서는 반드시 신부 집에 ⑥ \_\_\_\_\_ 을 지불해야 했다.

세번째는, 혼인 날까지 기다리다 당일,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⑦ \_\_\_\_\_ 를 하게 된다. 이는 결혼식의 절정이다. 본문의 어린양의 혼인 잔치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에 우리의 구원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혼인 과정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매우 흡사하다. 정혼은 선택, 예정이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엡 1: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 삼으 시려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정혼식이다. 우리의 지참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⑧ \_\_\_\_\_ 이다. 그 흘리신 피가 바로 신랑이 지불한 지참금에 해당한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이것이 바로 ⑨ \_\_\_\_\_,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은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의 기다림의 때에 해당된다. 이 기다림의 때에 신부는 스스로 잘 ⑩ \_\_\_\_\_ 해야 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 목사는 “나는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느라 너 무나 시장하다”고 했다. 이처럼 뜻있는 많은 성도들은 참된 소망을 바로 이날의 기쁨에 두고 살아야 한다.

## [결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할 때다. 또 우리는 우리 뿐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특히 에셀사역을 통해 수직선교와 수평선교의 균형과 함께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를 이루어 4/14W의 사명의 깃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세대가 잘 이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자.

## [적용과 기도]

❖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나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었음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우리 주변에는 재림의 날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이단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지도, 집착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으며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믿음 주시기를 힘써 기도합시다.
- 재림의 날 내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을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오고오는 프라미스의 다음세대가 기름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중보하며 기도합시다.